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같이 모여
이번 주의 큰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 매주 하나의 큰 주제(big topic)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씀 드렸죠?

이번 주 주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밤, 제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카리브해로 떠나는

크루즈 여행 경비를
모두 지불하였다고

상상해 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떨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상상력을 동원하여야 합니다.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이 스코틀랜드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관대할 수가 있지?'

제가 경비를 대고,
우리 모두가

카리브해로 떠납니다.

저는 럭셔리 선실비도 지불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웃고 계신데요,

여러분은 럭셔리 음식 등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지점에서
여러분을 모두 쳐다보고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모두 저녁을 먹었고,
만찬을 즐겼고,

지금은 연회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파티를 즐기고 있고,
생애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제가
연회장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연회장 중앙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죠.

여러분이 춤추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제가 목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제가 구조선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맞아! 정말 잘했어! 리!'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맞아. 그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진짜로 그런 것 같아. 누구 좀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조용하도록 좀 시켜주세요.'

이상하죠. 그쵸? 제가 그저

방으로 뛰쳐 들어와서 말한 것은

'구조선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다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나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밤새도록 춤을 추고 있는데,

제가 댄스 홀에 와서 소리쳐,

'여러분,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밖에 있었는데요.

무언가에 부딪친 거 아시나요?

빙산이었어요.....'

지구 온난화.

어디까지 빙산이 내려왔는지 놀랍습니다.

'제가 기관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배는 가라앉는 것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구조선까지 가는 방법을 압니다.'

그러면 뭔가 바뀔까요?

당연히 그럴죠.

제가 혼자 들어와서, 먼저

우리가 모두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하고,

지금 아주 큰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말하고 나서

해결책을 찾았다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제가 갑자기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구조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뒤,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럼, 오늘 밤 가장 중대한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가장 중대한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나큰 문제로부터 구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되어야 하며,
구조되어야 하는가를 이해하기 전까지

이것은 전혀 좋은 소식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문제를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요한복음을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가지고 있으시면,

저와 함께 요한복음 3장을 펼쳐봐 주세요.
제가 16절-21절을 읽겠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3장, 제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제가 지금 성경에서 읽은 첫 구절은

우리를 잠시 멈춰 서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성경구절 중에
우리로 하여금,

‘잠깐, 진짜로 그렇게 쓰여져 있어?’라고
묻게 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끌고,
이 구절을 응시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진짜일까?’

그렇지만 보통 이 구절을 읽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지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너무 익숙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전에 들어봤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들어봤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들 자신을 어떻게 보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때문이죠.

그럼 이 말이 전혀 충격적이지 않죠. 그쵸?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스럽다고 봅니다.
사랑 받을 만 하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면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마음 깊이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야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오늘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다면 놀라시겠어요?

‘정말? 어떻게 그럴지?
당신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제 아내를 아시는 분들은
그녀는 제 사랑을 받을만하고,

무척 사랑스럽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 대한 내 사랑을 의심하기 보다는,
아마도 “또 사랑타령, 마누라 자랑이군...,”

라고 닭살 돋아 하시겠죠.

그녀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 지를 보면
당연히 제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사랑스럽고 사랑 받을 만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들 아닌가?’라고 생각할 겁니다.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페이스북 친구 초청을 안 하고 싶으시겠어요.

당연히 초청하고 싶으시겠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좋고,
괜찮고, 착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사람들은 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이죠.

그리고 둘째,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찰은 사람의 기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의 관찰음의 기준은
정말로 낮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올림픽에 출전할

원대한 야망을 가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맞아요. 당신은 건장한 운동선수 같아 보여요.’
라고 말하시겠어요?

그리고 ‘왜 그전에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리고 저의 주종목을
높이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헌신적이고 열심히 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밤 집에 돌아와
뒷마당에서 저 혼자 높이뛰기를 연습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워낙 잘사니깐(^.^),

벽돌을 양쪽에 쌓고
빨래 줄이나 빨래 대를 가져다가

이정도 높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저는 높이뛰기를 연습합니다.
또 뛰어 넘고,

제 아내를 불러서 말하죠.
‘여보, 내가 이것을 뛰어넘었어. 봐! 굉장하지?’

이것을 매일 밤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제가 영국 올림픽 출전 팀이 되었습니다.

와. 정말로 자랑스러운 순간입니다.
제가 경기장에 국기를 들고 입장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영광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높이뛰기 종목 순서입니다.

그 동안 오랜 시간 저는 연습을 해 왔죠.

그리고 도착해서 발견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높이뛰기 바를 이 정도에 둔 것이 아니라,
바를 이렇게나 높이 올려놓은 것이었죠.

그동안 저는 제 기준만 성취했던 겁니다.
당연히 제 기준에는 맞았습니다.

문제는 제 기준 자체가 너무나도
낮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준은 정말로 너무 낮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저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저 저의 삶을 조용히
살아가고 있으니깐요.'라고.

하지만 이런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말로 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히시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들 중 얼마나 많은 자들이 남에게 상처 입히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왔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너무도 낮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이토록 높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어떻게
대하는 지까지 신경 쓰시지?' 생각하실지도 있지만,

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는 친척 중

누구에게 맞았거나
모욕을 당한 사람이 있나요?

그럼 화가 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친척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을 사랑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다치게 한다면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럼 지난 주에 무엇을 배우셨죠?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에 책임을 다하신 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욕하거나 때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자신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함에 대한 기준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길거리를 산책하다가,
뜬금없이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저기요..'라고 말을 건다면,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선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선함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보통 '저는 조용히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면서 삽니다.'라고 말하겠죠.

여러분께 여쭙봐도, 사람들의 대답을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평적이죠.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나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매 순간 숨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죠?

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대항하거나 그럴진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들면서
화내며 고향을 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일부 있긴 하겠지만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저 하나님을 무시한 채 하루 하루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는

주제곡을 부른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그건 분명 프랭크 시나트라일 겁니다. 그렇죠?

가사를 아시죠?
“후회... 조금 있었죠.

하지만 입 밖에 내서 말할 정도는 아니죠.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고,

어떤 예외도 없이 끝까지 해냈습니다.
난 내 인생의 진로를 계획했고,

셋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계획했죠.
그리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가사는 모두 아시죠? “I did it..”
“My way.” (내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다들 잘 아시네요.
“I did it my way.” (내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이 곡은 많은 사람들의
삶의 주제곡을 잘 보여줍니다.

이 곡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절대로 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도 가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긴 합니다. 하지만, 왜 그러한지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이유는
‘맞아. 나도 그게 좋아.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해야지.’ 생각하기 때문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 지가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테스트입니다.

그때 삶의 주관자가 자기 자신인지
아님, 하나님이신지 정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뒤쳐져 있거나

그저 오늘날에는 터무니 없다고 생각될 때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대체 뭐가 문제지?’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뭐가 잘못 됐지?’
개인적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문화의 많은 이들이 이것을
자기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성장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잠시 동안,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저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아주 크고
멋지며 화려한 집입니다.

가진 돈을 최고급으로 집을 장식하는데
다 투자했습니다.

상상이 가세요?
최고급 소파, 최상급 요리기구,

최고급 바닥, 최고급 카펫
카펫 위를 걸기만 해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집이요.

그리고 이 저택 주인이
이 집을 임대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줄 것입니다.
저택이 잘 관리되도록,

모든 전기, 가스비를 주인이 낼 것입니다.

주인은 세입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화려한 저택에 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그 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매주 저택 주인으로부터
작은 선물과 함께

소포가 도착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주인은 세입자들을 정말 잘 돌봅니다.

그러나, 주인은 세입자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저택에 사는 세입자들은
주인에게 월세를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해, 주인은 편지를 썼죠.
그들이 괜찮은지 궁금해서요.

그러나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아무 소식도요.
그래서 주인은 그들을 방문하기로 하죠.

도착해서, 키를 꺼내,
열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자물쇠가
바뀐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하고 말했습니다.

누가 커튼을 열고
'당신 여기서 뭐하는 거요? 소리를 칩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나요?'

'이 집은 내 집이고,
다들 괜찮은지 보려고 왔어요.'

'이 집에서 꺼져요. 여긴 우리 집이야!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마시오.'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든 그들을 설득해서,
문에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가 여태까지 쓴 편지가
무시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저택에 들어가보고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집이 완전히 엉망이 된 거예요.

집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말했는데도

집은 완전히 엉망이 돼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때려 부수고,
소파는 엉망이 되었고,

쓰레기는 여기 저기 쌓여 있고,
완전 엉망진창인 꼴이 됐죠.

그리고 벽 여기 저기에
주인이 얼마나 못 되고

포악한지 낙서가 적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슨 권리로 주인이 그 집에 찾아왔나?’ 인가요?

아니죠.
당연히, ‘뭔가 크게 잘못됐네.’라고 생각하시겠죠.

맞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훌륭하고 굉장한 창조주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지만,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하나요?

우리는 대체로 그의 세상에 살면서
그를 무시하고,

그가 받기에 마땅한
찬양, 찬미, 영광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세상을 파괴하고,
그의 창조물을 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응답하실 거라 생각하시나요?
큰 질문은 이런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창조주 앞에 서서

우리가 그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책임을 질 날이 정해져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실은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의 날이 오길 고대하고 있지 않으세요?

음, 텔레비전을 들고
신문을 보면

온갖 소름 끼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 그냥 풀려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정의의 날이 오길
바라고 계실 겁니다.

이 모든 잘못된 일들이
올바르게 되는 정의의 날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 날이 오길 원합니다.

하지만, 정의의 날에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린 방청석에 있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곳이 원하는 곳이죠.

정의의 날을 원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죄의 벌을 받는 것을

방청석에서 내려다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방청석에 서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럼 이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 심각한 죄는 심각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그를 무시하고,

욕하고, 그의 창조물을 상처 입히고,
그의 세상을 부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의 창조주께 반란을 한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세상은 이것은 자기표현이며,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사랑의 창조주에 대한 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알게 되실 거지만, 예수님 없이는
우리 모두 영원한 진노를 받을 겁니다.

예수님의 현존에서 추방되어,
그의 사랑에서 쫓겨난다면

영원토록 우리는
그의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을 기억해보세요. 나쁜 소식의 배경.
그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세요.

굉장한 구절입니다.

이미 같이 읽었지만,
읽은 내용의 배경을 생각하며,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세상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를 대했던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000년도 더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극적인 구조 임무에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기에 마땅한 정당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려는 구조 임무였습니다.

그럼 질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받기에 마땅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실 수 있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을 펴고, 페이지를 읽어보세요.

무엇을 발견하게 되죠?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 예수님의 구조작전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쵸?
평소 슈퍼히어로를 상상하면

하늘을 날면서 등장해서
극적으로 사람들을 구하는 장면이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
너희를 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특이하죠. 이해하기 힘드시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오늘 밤 초반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을 떠올리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배운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을 때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셨다는

성경의 오래된 부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양은 죽어야 했습니다.
양이 죽고,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지나시긴 해도

양을 희생해서 받친 집은
그냥 넘어가시고,

대속물인 양이 희생되었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는 우리의
유월절 양(희생 양-우리의 죄 대신 죽어야 하는 속죄물)

로 오신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에 모두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그가 여러분과 저와 저처럼, 반항자와 같은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대속물(대신 죄를 짊어지는 것. 원뜻은 돈(대가)을 지불하여 그 값을 치루었다는 뜻) 이셨습니다.

희생물이셨던 거죠.
우리 모두는 대속이 무엇인지 압니다.

가장 좋아하는 팀 혹은
스포츠 종목이 있다고 칩시다.

투수에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형편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럼 텔레비전에 대고 뭐라고 소리치실 건가요?
선수 바꿔!

왜 교체 선수를 데려오지 않는 거지?

무슨 의미인줄 아실 거예요.
대속물은 다른 사람의 자리에 와서 대신 서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인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리에 오셔서
대신 서신 것입니다.

그는 완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누구셨습니까?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무수한 사람들을 위해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럼 그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는 성스럽고 영원하시며,

무한하게 소중하신,
우리 목숨의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굉장하죠. 그쵸?
그러나 이는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8절을 보세요.
이는 놀랍지만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저는 이 문장의 첫 두 단어를 좋아합니다. 첫 단어는 ‘누구든지’.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과거나

어떤 문화권에서 왔는지,

피부색이 어떤지,
어떤 교의를 믿든지 상관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는 두 번째 단어,
‘누구든지 믿는 자는’이란 표현도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적당히 착하거든, 누구든지 어느 정도 열심을 내거든,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충분한 포인트를 모으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든지 나(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말씀하십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단순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인격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리부터 하고 나서
예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와서
자신을 맡기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우리도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처음에 시작했던
그 배로,

저의 구조선 예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침몰하는 배 위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침몰하는 배 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배가 가라앉고 있다고 믿고,
우리 모두 뛰어내려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구조선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앉거나 서서
구조선을 오랫동안 쳐다 보기만 할 수 있습니다.

응시합니다. 구조선을 좋아할 수도 있죠.

여러분은 아마 ‘월간 구조선’이란 잡지를 구독하는
그런 취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만을 위한 잡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 몇을 데려다가

물어볼 수도 있겠죠,
‘구조선 좋아하세요?’ 좋네요.

구조선을 좋아하세요?
그럼 오셔서 구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그리고 구조선을 그쳐
아주 오랫동안 응시하고,

구조선에 대한 모든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조선을 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믿는 자’ 즉, 구조선을 탄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밤은 충분히 말씀 드린 것 같네요.

그럼 각 조로 돌아가 각자 들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Identity – Who is God? Who are we?

© Lee McMunn, 2011

All rights reserved. Except as may be permitted by the Copyright Act,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rior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Published by 10Publishing, a division of 10ofThose Limited.

All Korean scripture quotations are taken from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 Korean Bible Society.

10Publishing, a division of 10ofthose.com

Unit 19 Common Bank Industrial Estate, Ackhurst Road, Chorley, PR7 1NH, England.

Email: info@10ofthose.com

Website: www.10ofthose.com